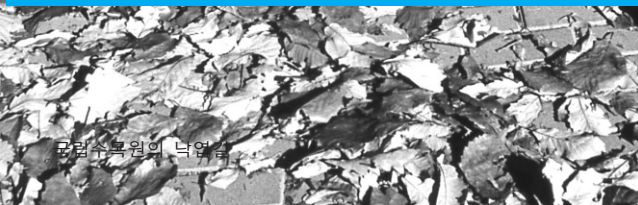




운치와 서정 물씬한 늦가을 숲길 2곳

글 / 김 초 록 (여행작가)



죽림수목원의 낙엽길

가을도 깊어 어느덧 11월이다. 아침 기온이 뚝 떨어진 강원도 산간 마을은 벌써 겨울 채비에 들어갔다든 소식이 들린다. 단풍이 10월을 빛냈다면 11월은 낙엽 세상이다. 앞을 다 떨군 요즘 숲은 온통 낙엽밭이다. 짝아서 더욱 아쉬운 이 가을, 세상 모든 일을 잠시 잊고 숲 속의 생명들과 얘기를 나눠보자. 누가 그랬던가. 숲은 어머니 품 속 같다고.



관방제림

가을 서정 물씬한 담양의 숲길

대나무의 고향으로 널리 알려진 담양에는 아름다운 숲길이 세 곳 있다. 전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가로수 길로 꼽히는 메타세쿼이아 숲길, 수백 년 묵은 거목이 득을 따라 둘러선 담양천의 관방제림, 그리고 언제나 푸른 대숲길이 그곳이다. 이들 숲길은 이물어가는 가을 정취를 느긋하게 맛볼 수 있는, 사색 여행지로 그만이다.

길손은 먼저 죽림욕장(대나무 체험학습장)으로 간다. 대숲을 거닐며 몸과 마음에 달라붙은 욕심을 비워내기 위함이다. 금성면 봉서리 고지산 아래에 펼쳐진 대나무골 테마공원(www.bamboopark.co.kr)은 죽림욕을 즐기기에 제격이다. 담양읍에서 24번 국도를 타고 순창 쪽으로 가다 '석현교'에서 우회전, 봉서리 비내동마을로 들어가면 된다. 그림 같은 담양호를 중심으로 추월산과 금성산성이 자웅을 겨룬 곳에 거대한 대숲이 들어섰다. 경치가 아름다워서일까? 각종 CF 촬영과

영화 '청풍명월', '흑수선', 드라마 '다모', '여름향기' 촬영지로 이름을 날렸던 곳이다. 이곳의 대나무숲은 담양 최대를 자랑한다. 개인(대표 신복진)이 운영하는 대나무 공원으로 유료이긴 해도 모든 게 만족스럽다. 부채살처럼 펼쳐진 3만여 평의 아산에는 맹종죽과 왕죽, 분죽, 조릿대(산죽) 등 각양각색의 대나무가 사이 좋게 어우러져 있다. 어느 순간 바람이 쇠아아~ 댓잎을 건드리고 지나간다. 울울창창한 대숲 길을 거닐며 즐기는 죽림욕은 산에서 즐기는 삼림욕과 무엇이 다른가. 대숲에서 번져오는 죽향을 피부 깊숙이 들이마신다. 머리가 맑아지며 힘이 솟는다. 이곳에서는 청량한 대숲 바람을 마시며 삼림욕과 죽림욕을 동시에 즐길 수 있다. 죽림을 빠져 나오면 그 위로 황톳길이 깔려 있다. 입장료 어른 2000원, 학생 1500원, 어린이 1000원.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문의: 061-383-9291.

대나무골테마공원에서 나와 읍내향교리에 있는 죽녹원으로 간다. 대나무골테마공원이 광활하다면 이곳은 아기자기한 멋을 풍긴다. 군청에서 직접 운영하는 보기 드문 휴식처다. 영화 <알포인트> 촬영지로 유명세를 타기도 했다. 돌계단을 오르니 뽀뽀하게 들어선 대숲 사이로 꼬불꼬불 산책로가 나 있다. 바람도 잠시 휴식에 들어간 오후 3시 무렵의 대숲길은 그윽하고 감미롭다. 대숲길 저 만큼 또 다른 세상이 펼쳐져 있는

것만 같다. 대나무로 만든 정자(쉼터)에 앉아 하늘로 치솟은 대 줄기를 바라본다. 대나무 사이로 스미는 바람이 제법 차다. 싸늘한 느낌과 함께 몸 속으로 파고드는 맑은 공기가 일상의 피로를 말끔히 걷어간다. 댓잎 사이로 보이는 파란 하늘이 눈부시다. 운수대통길, 죽마고우길, 사랑이 변치 않는 길 등 예쁜 이름표를 단 산책로는 제각각 독특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입장료는 무료다.

죽녹원 앞에는 담양천(금성천 또는 관방천)을 따라 느티나무, 엄나무, 개서어나무, 푸조나무, 음나무, 뱀나무, 갈참나무, 곰의말채나무, 이팝나무, 팽나무 등이 죽 늘어선 관방제림(官防堤林, 천연기념물 제366호)이 펼쳐져 있다. 수령 200년을 헤아리는 아름드리 나무들이 2km나 늘어서 있다. 관방제림은 지난 해 전국 아름다운 숲 대상을 차지하는 영예를 안았다. 주민들의 휴식 공간이자 산책로로 사랑 받으면서 담양의 보물이 되었다.

철따라 독특한 풍광을 보여주는 이 독길은 영화와 드라마, CF 촬영지로 인기를 끌고 있으며 연인들의 데이트 코스로도 그만이다. 독길에 수북히 쌓인 낙엽은 밟을 때마다 바스락 바스락 고운 소리를 낸다. 담양읍내의 동정자 마을에서 수북면 황금리를 지나 대전면 강의리까지 이어지는 독은 원래 홍수를 막기 위해 조선 인조 26년(1648)에 축조한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독 위에 나무를 심은 것은 철종 5년(1854) 제방을 보수하면서부터라고 한다. 관방천 독길은 예전에 죽물시장이 열리던 장터였으나 지금은 아쉽게도 그런 진풍경을 볼 수 없다. 죽제림의 인기가 예전 같지 않기 때문이다. 마을축제나 체육행사가 있는 날에는 나무가 우거진 독길이 사람들로 가득찬다. 독 밑으로는 맑은 물이 사철 흘러내려 여름철에는 아이들의 물놀이 터가 된다.



죽녹원 산책길



메타세콰이어길

대나무를 빼놓고 생각할 수 없는 담양에서 반드시 가봐야 할 곳이 있으니 바로 메타세쿼이아 가로수길이다. 중국이 원산지인 메타세쿼이아(Metasequoia)는 미국에서 개량된 수종으로, 1970년대 초부터 묘목을 심어둔 것이 지금과 같은 울창한 가로수길이 되었다. 산림청이 가장 아름다운 거리 숲으로 선정했다. 담양에서 순창으로 이어지는 24번 국도는 드라이브 코스로 아주 좋다. 공룡시대부터 살았다는 메타세쿼이아 수천 그루가 도로 양쪽으로 멋진 그림을 연출한다. 아무리 봐도 멋진 길이라 사진 한 컷 담아둘 만하다. 특히 잎사귀들이 진갈색으로 물든 11월이면 마치 동화의 나라에 온 것 같은 느낌마저 준다. 인근에 있는 금성산성은 우리 아픈 역사를 돌아보게 해준다. 장성의 입암산성, 무주의 적상산성과 함께 호남의 3대 산성으로 꼽힌다. 산성 정상에 오르면 앞으로는 무등산과 추월산이 한 폭의 동양화처럼 건너다 보이고, 발 아래로는 텅 빈 담양들녘과 고요한 담양호가 그림처럼 펼쳐진다. 특히 가을날 이른 아침, 산성에서 바라보는 운해(雲海)는 천하절경 그 자체다. 가을빛을 담은, 담양호를 따라가는 29번 국도 왼쪽으로는 남도 5대 명산의 하나인 추월산(해발 731m)이 우뚝하다. 정상에 오르면 푸른 담양호가 두 눈 가득 들어온다. 담양호 입구에서 정상까지는 약 1시간 30분이 걸린다. 시간이 있다면 담양호를 돌아 순창 방향으로 내려오면 강천산(일명 광덕산, 해발

586m) 입구에 다다르게 된다. 강천산은 '호남의 금강'이라 불릴 만큼 경치가 빼어나다.

여행족지

▶ (지역번호 061) 대중교통: 강촌터미널에서 담양행 고속버스 출발 3시간 50분 소요. 대구에서 담양을 경유하는 광주행 자취버스 운행 3시간 40분 소요. 광주에서 담양행 버스 20분 간격으로 운행. 자가운전 호남고속도로 백양사나들목-1번 국도-장성호수 북안-담양-담양읍내에서 대나무길 테마공원과 추월산행(가마골) 버스 하차 9시 운행 88고속도로 담양나들목-24번 국도(순창 방향 약 5km)-4차선교 7번차 바로 우회전 2km-대나무길 테마공원. 매주 토요일 담양 군청이 제공하는 버스 투어(대나무박물관 → 죽록원-담양호-메타세쿼이아길-소쇄원)를 이용해 각 지역을 돌아보는 것도 한 방법이다. 요금은 초등학생 이상 1만원(1명 포함). 예약 필수. 담양에서 터미널(061-381-3233).

진한 가을빛 담은 국립수목원

가을이 깊어지면서 산하는 온통 진갈색이다. 곱게 물든 단풍과 파란 하늘이 빛어내는 절묘한 조화는 가을 풍경의 백미. 만물이 침침하는 이맘때 수도권에서 가까운 국립수목원(포천시 소흘읍 직동리)을 찾아가면 자연이 베푸는 혜택을 가슴 가득 담아올 수 있다. '서울의 허파'로 불리는 국립수목원은 15만여 평의 면적에

3천여 종의 식물들이 자라고 있는 국내 최대의 자연보존림이다. 중앙에는 소리봉(해발 536m), 남쪽에는 첨점산(해발 476m), 서쪽에는 용암산(해발 479.6m)이 둘러싸고 있어 언제 찾아도 그윽함과 청신함이 묻어난다.

국립수목원은 크게 식물원, 관목원, 관상수원, 난대식물원, 수생식물원, 습지원, 침엽수원, 맹인식물원, 활엽수원 등 15개의 전문 수목원으로 이뤄져 있다. 시각장애인을 위해 감촉과 향기만으로 식물을 판별할 수 있도록 만든 맹인식물원은 이곳에서만 볼 수 있는 독특한 시설이다. 피라미드형으로 만들어진 난대식물원엔 동백나무, 커피나무, 팔손이, 크로톤 등 총 320여 종의 온대 및 아열대 식물이 전시돼 있어 마치 열대 지역에 온 것 같은 착각이 들게 한다. 관상수원엔 달나라 옥토끼와 함께 산다는 계수나무가 있어 눈길을 끈다.

식물뿐만 아니라 이젠 멸종했거나 위기에 처한 한국 토종 동물들도 만날 수 있다. 크낙새(천연 기념물 제197호)를 비롯해 참매, 독수리, 수리부엉이, 말뚝가리, 원앙, 큰소쩍새, 올빼미, 황조롱이, 장수하늘소, 하늘다람쥐 따위의 조류와 야생 동물원에 사는 백두산 호랑이, 반달가슴곰 등이 그것들이다. 그러나 야생동물원은 일반인에게는 개방하지 않고 있다.

여름휴이 무성함을 뽐낸다면 가을 숲은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혀 준다.





국립수목원의 붉은 단풍

가을빛을 듬뿍 받고 있는 국립수목원엔 아담한 호수도 있다. 육림호란다. 호수 옆으로는 실개천이 맑은 물 소리를 내며 흘러간다. 휴게소를 겸한 통나무 산장도 호수 옆에 들어섰다. 이즈음, 호수 가는 온통 노랗고 붉은 색이다. 산책로를 따라 천천히 걷노라면 사르락 사르락 발바닥에 와 닿는 낙엽의 감촉이 새롭다. 두 갈래 길에서 왼쪽 길로 가면 아담한 통나무 다리가 놓여 있다. 낙엽이 깔린 산책로 좌우로는 잣나무, 전나무, 소나무, 밤나무, 복자기나무, 갈참나무, 졸참나무, 떡갈나무, 신갈나무들이 뽀뽀하게 우거져 있다. 붉은 이파리를 가득 달고 있는 복자기나무의 자태가 참으로 곱다. 구수한 나무냄새며 마른 풀 냄새가 코 끝에 와 머문다. 새들의 청아한 지저귀에 귀가 즐겁다. 구경 나온 사람들의 표정이

꽃처럼 환하다. 가을 분위기에 젖은 연인들이 단풍나무를 배경으로 사진 담기에 바쁘다.

숲 생태 관찰로를 지나 수목원 광장까지 이어지는 길에도 낙엽송들이 늘어섰다. 한 순간 바람이 불자 여기 저기서 이파리들이 우수수 떨어져 내린다. 그 모습이 꼭 영화의 한 장면을 보는 것 같다.

국립수목원에서 빼놓지 말고 봐야 할 것이 있다. 수목원 중앙에 들어선 산림박물관이다. 지하 1층 지상 2층의 산림박물관에는 목재 표본과 식물화석, 산림과 환경, 목재의 쓰임새, 목재의 벌채와 운반, 목재의 가공과 이용, 종이의 발달, 한옥과 사찰 및 궁궐의 구조, 산림 역사 등에 관한 자료가 전시돼 있다. 수목원 뒤꼍으로 난 산림욕장도 한번 거닐어 볼만하다. 독서하는 숲, 명상하는 숲, 만나는 숲, 아쉬운 숲 등 주제별로 아늑하게 꾸며 놓았다. 천천히 심호흡을 하면서 나무들이 내뿜는 신선한 공기를 맘껏 마셔보자. 새들의 지저귀, 잎새들의 수런거림, 나무들의 속삭임, 풀꽃들의 작은 이야기까지, 그곳에서 방문객들은 신선이 된다.

일정에 여유가 있다면 수목원에서 가까운 고찰, 봉선사에도 들러보자. 봉선사는 조선 예종 원년(1469년) 정희왕후의 명으로 세워진 자그마한 절집이다. 여러 번 전화를 겪기도 했으나 최근 말끔히 단장돼 고즈넉함이 물씬 풍긴다. 수목원에서 봉선사로 이어진 도로는 드라이브 코스로 아주 좋다. 도로 양쪽으로 숲이

우거져 공기 맛이 다르다. 서울에서 가지면 도봉로~의정부역~축석고개~수목원 길(편도 30km)이나 천호대교 북쪽 광장동 4거리~교문 4거리~퇴계원~밤섬유원지~봉선사~광릉내~수목원 길(28km)을 타면 된다. 또한 소흘읍 고모리, 이른바 문화거리엔 운치 있는 카페(갤러리 겸용)와 찻집, 레스토랑 등이 늘어서 있다. 카페에서 바라보는 고모리 저수지 풍광 또한 일품이다.

여행족지

▶(지정번호031)자카운립서울(미아리)의정부-축석고개-광릉내입구-수목원(32km). 서울(항릉리)-구리사-퇴계원-거탑-광릉내입구-수목원(34 km), 서울(학계역)-태릉-퇴계원-광릉내입구-수목원(30km). 대중교통: 항릉리에서 7번 또는 좌석 707번을 타고 광릉내에서 하차 후 2번 버스 타고 국립수목원서 하차. 종로5가에 서 12번 버스를 타고 의정부 구 시외버스터미널에서 하차, 광릉내행(21번) 버스 이용. 지하철도 의정부역(1호선) 하차, 구 시외버스터미널에서 광릉내행 버스(21번) 이용. 국립수목원을 방문 하기 위해서는 5월 1일에 3월이나 10월 셋으로 예약해야 한다. 토, 일요일에는 숲을 보호하기 위해 관람객을 받지 않는다. 관람시간 : 09:00 ~ 17:00. 입장료: 어른 1,000원, 어린이 500원, 주차료 3,000원, 하루에 4차(10:00 11:00 14:00 15:00) 숲 해설가의 설명도 들을 수 있다. 매표소 앞에서 신청하면 된다. 문의(031-540-1114).